

42장. 제사장의 구역

1. 건물 안 (42:1-14)

성소에서 북쪽으로 나가면 길이가 100척이고 너비가 50척이 되는 건물이 성전에 붙어 있고 그 안에는 좌우로 마주하는 방들이 있었다. 이러한 구조가 3층까지 이어졌고 위쪽으로 갈수록 좁아졌다(42:1-9).

성전 남쪽에도 북쪽과 똑같은 방이 있었다(42:10-12).

북쪽과 남쪽에 있는 건물의 방들은 ‘거룩한 방’이었다. 여기에서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먹었고 제사장의 옷을 벗어 두었다.

2. 건물의 담 (42:15-20)

성전의 내부를 측량한 후에 밖으로 나와서 성전 뜰을 포함하여 사방 담의 길이를 측량하였다. 각 담은 모두 500척으로 장방형을 이루고 있었다.

성전을 측량하는 것은 사방의 담에 대한 묘사로부터 시작하였는데(40:5), 성전의 치수를 재는 일이 사방의 담에 대한 것으로 마무리된다(42:15-20). 그리고 담으로 구분된 것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고 속된 것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임을 밝힌다(42:20).